

조선 후기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 전주 재인청과 전주 아전을 중심으로

이 영 금(안동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전주 재인청의 위상 |
| 2. 문화 소비지로서의 전주 관아 | 5. 전주 아전과 무부와의 관계 |
| 3. 재인청을 통한 무부들의 활동 영역 확장 | 6. 맺는말 |

1. 머리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조선후기는 민간 음악이 매우 발달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성리학보다는 실학이 강조되어 실학자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화폐 경제 체제가 형성되어 상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사제도가 변화되어 군영에 세악수가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세악수는 조선 후기 유흥문화를 더욱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¹⁾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판소리 또한 다양한 유파가 생성될 정도로 더욱 발전하였다. 판소리는 17세기 후반 무렵에 서민층을 기반으로 한 민속예술로 출발하였지만, 19세기 전반에 이르면 양반·중인·부호층 등이 판소리의 주요 향유층으로 등장하면서 판소리는 전 계층의 애호를 받는 민속

1) 이숙희, 『조선후기 군영악대』, 태학사, 2007, 193면.

예술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사설이 첨가되고 다양한 음악어법의 수용과 개발을 통해 음악적 표현 능력이 확장됨으로써, 판소리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 높은 예술로 변모되어 다양한 계층을 향유층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흡인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²⁾

호남지역 무부들은 무업인일 뿐만 아니라 민간과 관청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능 활동을 펼친 예능인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무부들은 지방이나 중앙 관청의 각종 연회 행사에 대거 참여하여 활발한 예능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세습무계 출신의 무부와 관청 예능인과의 관련성은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김동욱은 조선 후기 때만 하더라도 경기 이남의 세습무 집안의 남자들이 화랑이들이, 평상시에는 관청에서 악기 연주 등을 하는 악공으로 동원되고, 중앙의 산대회가 있으면 중앙의 나례, 우인(優人)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였다.³⁾ 조성도 전라도 세습무 집안 집안의 남자들(사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습무계에서 판소리 명창·악사·재인 등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⁴⁾ 또한, 이보형은 광대·재인·악공 등을 하는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을 ‘창우 집단’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들 집단은 기능집단이면서도 이익집단이며 혈연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⁵⁾ 이보형의 논의를 확장한 손태도는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뿐만 아니라 경기 이북의 재인촌/광대촌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이들을 광대집단이자 신분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⁶⁾ 이외에도 세악수에 주목한 안확은 세악수 출신과 무속 집단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세악수는 도가(道家)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도가의 상위기관인 도대방이 전국 무당을 통솔하였다는 것이다.⁷⁾ 또한 조선후기 군영 악대의 음악을 연구한 이숙희는 조선 후기 군영에 수용된 세악수의 악기 편성이 삼현육각이었

2) 김기형, 『宋門一家의 판소리 史的 意義와 동편제의 脈』,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1999, 257면.

3) 김동욱, 『한국 가요의 연구』, 을유출판사, 1961, 294면.

4) 조성, 『무속과 광대』, 『한국문화인류학』 제33회, 한국문화인류학회, 1965, 105면.

5) 이보형, 『창우집단의 광대소리 연구-육자백이 토리권의 창우집단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음악 논구』, 고대 민속문화연구소, 1990, 84면.

6) 손태도, 『광대의 가창 문화』, 집문당, 2003, 35면.

7) 안확, 『임오년의 조선 군악』, 『자산안확논저집』 권5, 여강출판사, 1994, 196면.

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악수의 음악과 무속 음악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기도 했다.⁸⁾ 배인교는 문헌 자료를 토대로 조선 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은 관노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는 재인청 소속의 무부와 관속 악공과의 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무부들 가운데 취재 과정을 통해 뽑힌 자들만 관노가 되기 때문에, 관노가 되지 못한 무부들은 관속 음악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⁹⁾ 그러나 관속 음악인을 악공으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관청의 음악인은 악공뿐만 아니라 광대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방 관아의 관노들이 광대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 하더라도, 관노의 주요 역할은 여전히 악공이나 관노로서의 구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조선후기에는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서 관노가 아닌 세습무계의 광대들도 다양한 음악 활동했었기 때문에, 지방 관속 음악인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전라도 세습무계 출신의 무부들은 무업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 관아의 예능을 담당해온 층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전북지역 세습무계 출신의 광대들이 중앙 및 지방 관아에서 판소리 활동을 활발히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무부들을 중심으로, 전주 재인청과 전주 아전과의 관계 그리고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와 현지 조사 및 구술 면담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전주 관아’라는 상징적 복합 공간을 중심으로 무속에 기반을 둔 광대들의 활약상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논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시각과 한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즉, 관찬 자료를 연구 대상 텍스트로 하여 조선 후기 음악사를 정리해온 선행 연구와 판소리 담당층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논쟁이 되어온 문제들이 이 글의 주요 논점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이 논문이 기대고 있는 논거의 주된 출처는 문자의 역사를 갖지 못한, 현재를 함께 살아가지만, 소수자인 사람들의 구술과 기억에 있다. 이러한 사

8) 이숙희, 앞의 책, 43면.

9) 배인교, 「조선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10) 손태도, 앞의 책, 63면.

람들의 문화적 기억을 토대로 해서, 관련 연구와 쓰여진 것들의 조각을 맞추어, 관아 행사에 동원된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을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찬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기대고 있는 실증주의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쓰여진 문자에 입각한 연구도 결국 추론과 상상의 요소가 주요하게 작동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부연하면 이런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 그 차이가 다양한 해석을 낳고 관련 연구의 담론지평을 풍부하게 하며 확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전주부와 전라감영의 상징성에 대한 것으로 이 논문에서 ‘관아’는 문화가 생성·성장·변화·분화 등이 활성화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관아는 행정적·사회적·문화적 의미망을 복합적으로 갖는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방식은 판소리의 민중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판소리의 의미와 성격의 양가성 혹은 복합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문제설정이다. 무부는 관의 입장에서 동원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제도화가 직능을 강화하고 또 특정 소수의 사회적 상승의 길을 열기도 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욕망의 구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형된 욕망의 제도화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재효와 같은 향리의 관여, 양반 취향의 문화화 등은 일방향이 아니라고 여러 방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여러 방향의 섞임과 울림이 판소리 문화를 변화시키고 분화시키고 확장해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자는 조선후기의 전북지역 무부들을 중심으로, 전주 관아의 아전과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관계 및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 소비지로서의 전주 관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라도는 전남·전북·제주도를 포괄하는 상당히 폭넓은 행정 구역이었다. 전라도 관찰사는 전주에 있는 전라감영에 근무하면서, 전남·전북·제주에 걸친 1부(府) 4목(牧)·4도호부(都護府)·12군(郡)·31현(縣) 등의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였다.¹¹⁾ 또한 전주는 전국적으로 4

곳에만 파견되었던 부윤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전주에 있었던 전라감영(全羅監營)과 전주부는 전라도 지역의 수부(首府)로 작용하였다. 전주부성은 좌편에 전라감영 우편에 전주부영이 배치되어 좌감영(左監營)·우부영(右府營)의 구조를 이루었다. 전라감영의 면적은 1만 2천 평 정도에 달했고, 전주부영(全州府營)의 면적은 7천여 평 정도였다. 전라감영은 건물 규모에서도 다른 지역 감영에 비해 매우 커서 조선시대의 대표적 감영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전주가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서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¹²⁾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태조(太祖) 어진(御眞)을 모신 경기전(慶基殿)을 설치하는 등 전주가 왕실의 본향(本鄉)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기전·조경묘·조경단·오목대·이목대·객사·풍납문·전주사고 등과 같은 문화유산은 전주가 조선의 ‘풍패지향’임을 상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조선 후기에는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을 민간에서 사게 되는 관청 중심의 상업이 이루어져 민간 계통의 상업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전라감영 내부에서도 종이를 만드는 지소(紙所), 부채를 생산하는 선자청(扇子廳), 책을 출판한 인출방(印出房)이 있었다. 전라감영의 생산품 가운데 한지는 종이 품질이 좋아 남원 종이와 함께 조공지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말에 이르러서는 전북의 한지 생산이 전국의 40%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질 좋은 한지를 토대로 전주감영에서는 진상용 부채까지 생산하기도 했다.¹³⁾ 전라감영에서 생산한 한지·책·부채 등은 전라감영 부근에 한지시장·출판시장·부채시장 등 대규모의 상권을 형성케 했고, 이와 더불어 한지·부채·책 등을 도매로 공급하던 중간 상인들이 대규모로 전주에 몰려들었다.¹⁴⁾ 이처럼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전주는 많은 사람들의 내왕으로 인하여 다양한 연희문화의 소비지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 관아 내부는 최대의 문화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전라 감영과 전주부 등의 지방 관아에서는

11) 전라도는 1896년 갑오경장 때 전국이 13도로 개편되면서 전라북도라 전라남도라 분리되었다(<http://www.jeonbuk.go.kr>).

12)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이 컸다.

13) 강준만·성재민 외, 『재미있는 전주이야기』, 인물과 사상사, 2008, 1-130면.

14) 앞의 책, 84-85면.

수령의 생일잔치·부임잔치·순시잔치, 은퇴한 수령의 양로잔치, 사신접대 등 다양한 연회 문화가 펼쳐졌던 것이다. 판소리 명창들도 전라 감영과 전주 부에서 주도하는 각종 연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판소리 오명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김창환의 집에 부지런히 드나든 제자 백성환의 증조부는 전주 감영에서 일한 이방으로, 명창들의 후견인이었다. 직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명창을 사귀는 일에 열성이라서 왕족 티를 숨기고 천하잡놈처럼 굴러먹는 흥선 이하응과도 교분이 있었다. 그런 그의 귀에 권삼득이 김제의 백산에서 차일을 치고 소리를 하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소문이 들렸다. 백 이방이 동료와 사령 몇 사람을 데리고 가본즉 수천 군중이 모여 있으며 권삼득이 소리를 하는데 과연 희대의 명창이었다……백 이방은 전라 감사의 분부라 하고 권삼득을 가마에 태워 감영으로 돌아왔다. 감사는 크게 기뻐하며 권삼득을 맞아들였고, 권삼득은 선화당에서 춘향가를 불렀는데 첫 소리 한바탕에 청중을 감동시켜 명창으로서의 이름을 떨쳤다. 그 후 권삼득은 전주에 근거하고 전라 감사의 비호를 받았다.¹⁵⁾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감영 소속의 백 이방은 권삼득 같은 판소리 명창들을 발굴하여 전라감영의 각종 연회에 참여케 했음을 알 수 있다. 완주 출신의 권삼득은 백 이방이 도움으로 전라감영의 연회에 참여하여 전라감사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라 감사의 비호를 받으며 전주에서도 거주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남원 운봉 출신의 송만갑은 전주 영문¹⁶⁾의 ‘대령 광대’로 활약하면서 전라감사의 부름을 받아 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에서 판소리를 부른 바 있다.¹⁷⁾ 광주 출신의 김채만도 전라감사 앞에서 판소리를 하였으며, 순창 출신의 장재백과 김세종도 1885년 전라감영의 잔치에 참여하여 50냥을 받았다고 한다.¹⁸⁾ 이처럼 전라감영과 전주부 등의 지방 관아는 전라도 판소

15) 박황, 『판소리 2백년사』, 사사연, 1987, 54-55면.

16) 전주 영문은 전라감영을 말한다.

17) ‘근대 조선의 명창 故송만갑 일대기’, <조선일보>, 1939.1.8(손태도, 『광대집단의 가창 문화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1, 72면 재인용).

18) 디지털남원문화대전 사이트(http://namwon_grandculture.net) 참조.

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문화소비지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3. 재인청을 통한 무부들의 활동 영역 확장

호남지역 무부들은 무업과 민간 예능에 종사하던 자들이었다. 무부들은 본래 자신의 부인인 무당과 함께 굿을 하는 무업인이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무업과 연예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부들은 무업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예능 활동을 펼쳐왔던 것이다. 이처럼 무부들이 민간 예능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덕분에, 무부들은 일찍부터 관청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무부들은 예능인이었고 또 천민으로서의 공역 의무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관청의 각종 연회 행사에 동원되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무부들은 관청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인청¹⁹⁾이라는 자치기구를 조직하여 관청 행사에 합당한 각종 기예를 창안하고 연마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무부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예능인이었지만, 관청 음악은 민간 음악과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무부들에게 새로운 음악 장르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을 것이다. 즉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민간 음악만으로는 유교적 지배이념이 강한 관청 및 군영의 행사를 치러내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 까닭에 무부들은 재인청이라는 자치 기구를 통해 관청 행사에 맞는 다양한 예능 장르를 창안하고 연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인청이 공역에 동원될 예능인의 공급처였을 뿐만 아니라 무부들의 기예 연마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된 예능이 판소리²⁰⁾·삼현육각잡이의 체례악과 연회악·줄타

19) 재인청은 지방 관아나 지방 군영에 예능인을 공급하던 무부들의 자치 기관이었다. 흔히 도가(都家) 조직이라도 명명되는 이러한 재인청은 각 도의 군·현 단위에 많이 존재해 있었다. 재인청은 신청, 악사청, 광대청, 화랑청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20) 판소리 초기 모습은 재담 소리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판소리는 주로 민중의 호응을 받으며 전승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판소리 향유층이 양반·중인·왕실 등으로 확대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재인청 소속 무부들이 이들 취향에 맞는 판소리 개작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땅재주·어릿광대와 같은 장르였다. 전북지역 삼현육각잡이인 최병호²¹⁾의 제보에 의하면, 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삼현육각 연주는 굿판 시나위 음악이 아니라, 유교식 제례악이나 축제에 맞게 창안된 연희악이었다고 한다.

관청 행사 때는 전부 우리 삼현육각잡이가 가서 했어. 시나위는 슬프고 한스런게 관청에서는 못혀. 굿판에서나 시나위로 허지. 향교 제례 때는 제례악으로 허. 고을 수령 행차 때는 길군악으로 허고, 병영에서는 취타곡으로 허. 부잣집 잔치에 가서는 흥을 돋우기 위해 여흥곡으로 허지.²²⁾

위의 제보에 의하면, 재인청 소속의 무부들은 굿판 음악과는 다른 다양한 음악을 개발하여 관청 행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 군영에서는 무부들이 최고수나 세악수로 많이 활동하였는데, 세악수는 피리·대금·해금·장구·북 등 삼현육각으로 편성된 삼현육각잡이들이었다.²³⁾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현육각은 원래 굿판에서 연주되던 시나위 음악이었으나 민간 음악은 관청 행사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무부들은 관청 행사에 맞는 제례악·길군악·취타곡 같은 새로운 삼현육각 음악을 창안했던 것이다.

무부들은 재인청을 통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창안하고 연마한 뒤 관청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예능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지방 군영에 동원될 경우에는 주로 최고수나 세악수로 활동하였으며, 관아 수령의 부임잔치·순시잔치·생일잔치, 퇴임 수령의 양로잔치, 사신접대, 지방 나례회 등과 같은 연희 행사 때에는 무부들이 수시로 동원되어 예능인으로 활동하였다.²⁴⁾ 조선 후기의 최고수와 세악수는 5영문을 비롯한 중앙 군영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감영이나 수영 등에도 있었던 보편적인 군영의 악대였다.²⁵⁾ 재인청 소속 무부들은 지방 관아나 군영의 공역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관아나 군영에 정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재인청에서 잠시 대령해 있다가 관아나 군영

21) 전주 일대의 세습무였던 (故)성화춘의 막내아들.

22) 제보자: 최병호, 조사 일시: 2010. 6. 11, 조사 장소: 완주군 이서면 자택.

23) 이숙희, 앞의 책, 196면.

24) 안길정, 『조선시대 생활사』(하), 사계절, 1판 3쇄, 2007, 89~99면.

25) 이숙희, 앞의 책, 24면.

의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군영 소속의 세악수는 평상시에는 별로 긴히 사용되지 않고 도가에 대령하고 있다가 매 3일마다 네 명씩 돌아가며 입번했으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모두 동원되었던 것이다.²⁶⁾

재인청은 지방 관아나 군영의 행사를 위해 무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기구였지만, 이러한 재인청은 무부들이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로 작용하기도 했다. 비록 공역이기는 했지만, 중앙의 연말 나례회·중국 사신맞이 때의 산대회·과거 급제자 문회연 등은 무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무대로 작용했던 것이다. 즉 중앙 무대는 천민인 무부가 왕과 중앙 관료들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재물과 벼슬을 하사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부들은 게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재인청을 설립하여 지방 관아와 긴밀히 교류하며 자신의 경제 활동 영역을 폭넓게 확장시켜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부들의 본래 직업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업인이자 예능인이었기 때문에 재인청 무부들의 활동은 관청 행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공역이 없을 때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전히 무업을 하거나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수익을 확보해나갔다 하겠다. 재인청에 관한 기록을 보면, 간음이나 상중(喪中) 무업 행위에 대한 제제, 다른 단골판에서의 무업 금지²⁷⁾ 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보아 재인청 소속 무부들은 공역 이외에도 민간을 대상으로 무업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창지역에는 박유전·장재백·유성준·장판개·김세종 등이 살고 있었는데,²⁸⁾ 이들 무계는 대부분 순창에서 무업 활동을 겸하면서 판소리 명창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판개의 어머니와 그의 부인인 김옥란은 순창군 금과면 일대에서 무업을 하던 큰 무당이었고,²⁹⁾ 장재백의 조카인 장작녕이 순창 적성 일대의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으로 보아, 장재백의 집안에서도 무업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⁰⁾ 또한, 박유전 무계와 김세종 무계에서도 무

26) 앞의 책, 213면.

27) 赤松智城·秋葉隆 공저(1938),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하), 동문선, 1991, 283~284면.

28) 최동현, 『판소리란 무엇인가?』, 에디터, 1996, 138~139면.

29) 이경엽, 「무속의 전승주체」, 『한국무속학』36집, 한국무속학회, 2002, 200~201면.

30) 김성식·이영배·최기우, 『전북의 재발견, 소리』, 전라북도, 2008, 98~105면.

업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박유전 아버지의 관할 영역은 쌍치·복흥·구림 일대였다고 하며, 김세종의 부인은 순창 동계면 일대의 큰 무당이었다고 한다.³¹⁾ 이처럼 평상시에는 무부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무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부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축제에도 참여하여 자신이 보유한 예능을 수단으로 경제 활동을 펼쳐가기도 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무부들의 활동 영역은 양반이나 중인층까지 포섭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들은 재인청을 토대로 연마한 자신의 예능을 수단으로 양반·부잣집 중인들의 모임이나 생일잔치, 향교의 제례 등에까지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재인청 소속의 무부들은 지방 관아와 연결된 재인청을 조직하여 지방이나 중앙 관청의 영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양반·중인 등의 향유층까지 확보하여 자신들의 경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나갔음을 알 수 있다.

4. 전주 재인청의 위상

군·현 단위의 재인청은 지방 관아나 군영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재인청의 총 감독기관인 도청(都廳)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는데, 전라도의 도청은 전주 재인청이었다. 전라도 관찰사는 전주에 있는 전라감영에 머물면서 전북·전남·제주도에 이르는 광활한 행정 구역을 관할하였는데, 이러한 전라감영 근처에 전주 재인청이 있었던 것이다. 도청으로서 위상이 높았던 전주 재인청은 전라도 일대의 재인청들을 총 관리 감독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의 각 군·현 단위에서도 남원 신청·광주 신청·나주 신청·장흥 신청·여수 악공청·영광 신청·진도 신청 그리고 제주의 심방청(神房廳)³²⁾ 등과 같은 많은 재인청이 있었다. 그러나 각 군·현의 재인청들은 전주 재인청 즉 도청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부들은 전주 재인청에 앞을 다투어 가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31) 김용근 면담 조사(일시; 2008. 7. 18, 조사자: 김성식, 이영배) 자료 참고.

32) 『한국민속문화백과사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67~368면; 赤松智城·秋葉隆 공저(1988), 심우성 역, 앞의 책, 273면; 이경엽 외, 『여수영당·풍어굿·악공청』, 민속원, 2007.

옛날에는 전라북도·전라남도도 나뉘지 않고 다 전라도라 했어. 그 전에는 그냥 윗녘, 아랫녘이라고 불렀어. 장성 갈래에서 끊어갔고 장성 위쪽으로는 윗녘이고, 장성 밑으로는 아랫녘이라 했어. 행정구역이 전북·전남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전주에 전라도 관찰사가 있었어. 아랫녘에는 보성 목사랄지, 나주 목사랄지, 그런 목사들은 있었지만 아랫녘에는 관찰사가 없었어. 지금 같으면 목사는 군수 정도나 되는 계급이여. 관찰사는 도지사급 정도 아니여? 그런 전주에 재인청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막강하긔어? 전라도에서는 전주 재인청이 제일 컸어. 관찰사가 있는 감영이 전주에 있었을게, 안 컸긔어? 갑오경장 전까지는 전주가 행정 중심 지역이었어.³³⁾

위의 내용에 따르면, 갑오경장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과 전남은 전라도로 통합되어 관리되었는데, 그 시절에는 장성·갈래 위쪽은 윗녘 지방으로, 장성·갈래 아래쪽은 아랫녘으로 구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에는 전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이 있었고 또 전주 재인청이 전라감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주 재인청의 위상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주 재인청이 전라도에서 제일 드셧어. 윗녘의 재주 있는 재인들이 모다 물려들었지. 경쟁이 치열혀 갖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 악기 하나라도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가입을 했어.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덜 않혀. (아랫녘 사람들도 전주 재인청에 가입할 수 있었나요?) 윗녘긔하고 아랫녘긔하고는 많이 달라. 그렇게 아랫녘 사람들은 가입허들 못허지.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라 아랫녘 사람들이 전주까정 오지도 못허. 더군다나 곳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켜 수 있간디? 전주 재인청 사람들은 모다 윗녘 사람들이여. 윗녘 사람들은 사돈·겹사돈으로 얽혀 있어갖고 다들 친인척간들이여.³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청이었던 전주 재인청에는 전주 지역 무부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량이 뛰어난 전북지역 모든 무부들에게도 가입이 허용

33) 제보자: 최병호, 조사 일시: 2010. 5. 21, 조사 장소: 완주군 이서면 자택.

34) 최병호의 집에는 재인청이 있었다고 한다. 최병호의 부친인 최장복도 삼현육각쟁이였는데, 그는 전주 재인청 장인으로 활약한 적이 있었다(제보자: 최병호, 조사 일시: 2010. 5. 21, 조사 장소: 완주군 이서면 자택). 전주 재인청은 갑오경장 때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게 조직 형태로 오랫동안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주 재인청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기량이 부족한 재인/무부들은 가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윗녘곳과 아랫녘곳은 차이가 크고 교통 또한 발달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남지역 무부들의 가입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따라서 전주 재인청은 혼맥으로 연결된 기량 있는 전북지역 무부들로 구성되었다 하겠다.

무부들의 예능 활동은 지방 관청뿐만 아니라 중앙 관청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도청이었던 전주 재인청은 지방 연희자들을 선발하여 중앙 무대로 진출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까지도 중앙의 산대회·중앙의 나례회·과거 급제자를 위한 문회연 등의 중앙 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행사에는 수백 명 이상의 지방 광대들이 대규모적으로 동원되었다.

노리게짓하는 희자(戲子)들을 전적으로 전라도에 책임지운 것은 그 수효가 무려 6백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광해군 일기 13년)³⁵⁾

광해군 때에는 중앙의 산대회에 6백 명이나 되는 광대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중앙 산대회에 동원된 전라도 광대가 다른 지역 광대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인조 4년(1626)의 ‘나례청등록(儼禮廳騰錄)’ 자료에도 중앙 산대회에 동원되었던 286명의 재인들 가운데 전라도 재인이 171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⁶⁾ 따라서 전라도 지역 광대들은 중앙의 행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하겠다.

1824년 5월에 작성된 <완문등장 팔도재인>에 의하면,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사신이 올 때 산대회를 거행하기 위해 설치한 각 도의 재인도청(才人都廳)을 통합할 목적으로, 갑신년(1824)년에 각 도의 소임(所任)들이 서울에 모여 행방회(行房會)를 열어 전국적인 규모로 재인청의 조직을 개조했다고 한다.³⁷⁾ 즉, 1824년 전까지만 해도 각 도에는 재인도청이 있었는데, 중국 사신맞

35) 戲子呈技 專實於全羅道) 厥數多國六百名- 광해군 일기 13년 9월 5일(손태도, 앞의 책 82면 재인용).

36) 조원경, 『인조 시대의 나례 등록, 『향토 서울』 제4호, 1958; 사진실, 『공연 예술의 기록, 나례 청 등록3』, 『문헌과 해석』 가을호, 1998, 64면(손태도, 앞의 책, 82면 재인용).

37) 김동욱, 앞의 책, 301-302면.

이 산대회가 있을 때마다 각 도 단위의 재인들이 무질서하게 서울로 올라와 시행하던 것을 통제하기 위해, 재인청을 다시 전국적인 기구로 재조직했다는 것이다.

충청도 재인 중 팔도 都山主 겸 都大房, 경기 재인 중 팔도 右山主 겸 都執綱, 전라도 재인 중 팔도 左山主 겸 都執綱³⁸⁾

위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각 도에 있는 도청을 통합하여 경기·충청·전라 등의 3도에만 도청을 두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기록은 중앙 산대회 때 경기 재인·충청 재인·전라 재인 등이 주축이 되어 전국 팔도의 재인들을 총 관리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준다. 충청도 재인청 소속의 재인에게는 팔도 도산주 겸 도대방을 맡게 하였고, 경기도 재인청 소속의 재인에게는 팔도 우산주 겸 도집강을 맡게 했으며, 전라도 재인청 소속의 재인에게는 팔도 좌산주 겸 도집강을 맡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중앙 관아의 연회는 충청도·경기도·전라도 재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중앙 연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도대방과 도집강에게는 팔도의 재인들을 중앙 무대에 투입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융희(隆熙) 2년(서기 1908년)에 도산주였던 이종만의 말에 의하면, 재인청은 광대청·화랑청으로도 칭하며, 경기·충청·전라 삼도의 각 군에 존재하는데, 각 도에 도청(都廳)이 있고 그 장을 대방(大房)이라 칭한다. 대방 아래 도산주 2명이 있고, 좌도도산주(左道都山主)·우도도산주(右道都山主)로 칭하며, 한도를 좌우로 나눈 곳을 관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주(山主)는 대방을 보좌하고 중요 사항을 평의(評議)하는 역할을 하며, 그 아래에 집망 4명·공원 4명·장무 2명이 있고, 집망과 공원은 간사에 해당하며 장무는 서무계이다. 계원은 단골집 즉 세습 무가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오로지 무악을 반주하는 화랑, 거꾸로 서서 줄넘기 등의 곡예를 연기하며 동시에 무악 연주자이기도 한 재인, 가무를 하는 예인도 있고, 무악하는 광대가 포함된다.³⁹⁾

38) 公淸道才人中八道都山主兼都大房 京畿才人中八道右山主兼都執綱 全羅道才人中八道左山主兼都執綱 ‘갑신안문’

39) 赤松智城·秋葉隆 공저(1938), 심우성 역, 앞의 책, 283-284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인청의 상급기관인 도청은 경기·충청·전라도에만 있었는데, 각 도청의 수장은 대방이었고, 대방 아래에는 한 도를 좌우로 나누어 관할하는 ‘좌도 도산주’와 ‘우도 도산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청이었던 전주 재인청은 전라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각 고을 재인청을 관리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각 도를 좌도 지역과 우도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했다는 사실은 『증보문헌비고』(영조 14년, 1738년)에도 나타난다.⁴⁰⁾ 좌도와 우도의 구분은 행정 편의를 위한 구역 개념이었다. 즉 좌도와 우도의 구분은 조세를 징수하거나 균적이나 호적의 장려, 관찰사의 파견 등의 편의를 위한 구분이었던 것이다. 전라도에서도 호남 좌도와 호남 우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었는데, 전라 좌도는 주로 동부 산간지역이었으며, 전라 우도는 주로 서부 평야 지역이었다.⁴¹⁾ 전주 재인청에서도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여 호남 좌도와 호남 우도로 구분하여 관리했다고 하겠다. 도산주(都山主)는 각 도와 읍의 재인들을 추천하여 중앙 산대회의 참여를 준비시키는 자인데,⁴²⁾ 좌도 도산주는 호남의 좌도 지역을, 우도 도산주는 호남의 우도 지역을 맡아 관리했던 것이다. 도산주는 중앙 무대에 참여할 예능인을 추천하는 자이고 대방은 재인청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대방과 도산주의 권한은 매우 막강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5. 전주 아전과 무부와의 관계

5.1. 아전의 후원과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발달에 크게 기여했던 계층은 전라도 관아의 아전들이라 할 수 있다. 아전들은 지방 관아의 하급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을 단위의 성황제·단오제, 그리고 지방 관아 내부의 나례회·각종 연회 등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자들이었다. 연회 주체는 대부분 기생과 무부들이

40) 『증보문헌비고』 제16권, 여지고(輿地考) 4, 군·현 연혁 전라도 조(條).

41) 좌도는 전주·임실·진안·남원·구례·순천·여수 등이었으며, 우도는 군산·부안·정읍·고창·장성·나주·영암·무안·목포·해남 등지였다고 할 수 있다.

42) 有才人中都山主爲稱所在任者 各道各邑才人等都取上來 ‘갑신완문’ 참조.

었기 때문에, 아전들은 기생과 무부들을 관리하면서 고을 축제나 지방 관아의 각종 연회들은 주도해왔던 것이다. 아전들의 수장이었던 호장에게는 기생·노비·무부에 대한 통솔권이 주어졌는데, 기생의 수청조차도 호장의 지시나 묵인 하에 수령이나 사신에게 제공될 정도였다고 한다.⁴³⁾ 이처럼 연회 주체를 장악하면서 각종 연회를 총 지휘했던 호장의 권한은 매우 막강했다고 하겠다. 판소리 사설을 개작하고 많은 명창들을 길러냈던 신재효(1812~1884) 역시 고창 관아의 호장 출신이었다. 그는 호장 시절에 지방 관아의 연회 주체들을 총 관리하면서 관청에서 열린 각종 잔치에 판소리 광대를 포함한 각종 연예인들을 동원한 바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후원과 이론적 지도로 많은 명창들을 길러내기도 했다.⁴⁴⁾ 관직에서 물러난 그가 이처럼 판소리 창자 육성에 힘을 기울였던 것은 관아에서의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막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대원군에게 오위장이라는 벼슬을 하사받을 만큼 대원군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고, 또 그의 휘하에 있는 유명한 명창들이 어전 명창으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창 관아 축제를 담당하던 아전들도 호장 출신이었던 신재효에게 많이 의존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라도는 국가 재정의 절반 정도를 담당했을 정도로 조선 제일의 곡창지대였다. 또한 전라도는 해상 교통로인 많은 강과 하천, 그리고 바다가 인접해 있어 사람들의 내왕과 문물 유입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전라도에는 다양한 유흥 문화가 발달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종 축제를 주도하는 아전들의 위세도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역의 수장은 고을 수령이었지만, 고을 수령은 외지 출신인데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임기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고을 수령이 아전을 장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고을 사정을 속속히 알기 어려웠던 고을 수령은 지역 토박이인 아전들에게 종종 큰 수모를 겪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낙안 군수로 부임했던 임경업의 경우를 보면, 아전들이 영을 받들기는커녕 심드렁하니 농치거나

43) 안길정, 앞의 책, 2007, 29면.

44) 신재효는 고창지역에서 동편제 명창인 김세종을 소리 선생으로 초빙하여 판소리 명창들을 후원하고 육성하였다. 이날치·박만순·정창업·진채선 등 다수의 명창들이 신재효의 지원과 이론적인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이상택, 「조선 후기 중인층의 판소리 문학」, 『한국문화』 제13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170면).

대 놓고 골탕을 먹여 그의 속을 태웠다고 한다.⁴⁵⁾ 군·현 단위의 고을에 비해 권한이 더욱 막강했던 도 권역의 아전들은 횡포의 정도가 더욱 심했다. 도에 있는 아전을 ‘영리’하고 하였는데, 아전들은 일반 고을보다 감영에 근무하는 것을 더 영예롭게 생각했던 것이다. 영리들은 자신들을 도내 향리들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할 정도였다고 한다.⁴⁶⁾

전주 아전들 권력이 아주 드쌌어. 전주서는 아전들을 켈로 알아줬지. 아전들로 꼭 찾았당게. 아전들은 대부분 교동 근방에서 살았어. 아, 한옥마을 그쪽이 전부 아전촌이여. 지금 기와집들 있는 곳이 전부 아전들이 살았던 곳이랑게. 원래 교동은 전주성 안에 있었어. 일제 때 전주성이 무너졌지만, 한말 때까진 아전들이 전부 전주성 안에서 살았어. 양반들하고 아전들은 성 안에서 살았잖아. 아전 가운데 권력이 세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 전주 아전들 세력이 최고로 셀거여. 전라도 관찰사라도 전주 아전들을 함부로 건드리딜 못했어.⁴⁷⁾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주 아전들은 전라도 관찰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권력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다. 아전들은 교동 지역에 밀집해 살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부를 축적한 아전들도 많았다고 한다. 제보자가 전주 아전들을 최고로 센 세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 도 권역에 있던 전주 아전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목민심서>를 보면, 전라감영의 영리였던 최치봉이 53개 읍의 아전들을 틀어쥐고 횡포를 부린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⁴⁸⁾ 또한 흥선 대원군도 조선의 3대 골칫거리 중의 하나로 전주의 아전을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⁴⁹⁾ 이처럼 각 고을의 아전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던 전주 관아의 영리들은 그 권한이 막강하여 횡포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창들의 발굴·후원과 더불어 전라도의 판소리 발전

45) 안길정, 『조선시대 생활사』(상), 사계절, 1판 3쇄, 2005, 82면.

46) 안길정, 『조선시대 생활사』(하), 사계절, 1판 3쇄, 2007, 32면.

47) 최병호 제보(일시; 2012. 6. 22, 장소: 완주군 이서면 최병호 자택)

48) 감영의 아전인 최치봉은 도내의 53개 읍 아전들의 수괴였는데, 그는 매년 아전들에게 수십 만 냥을 나누어주면서 창고에서 빼낸 곡식으로 고리대의 밀전으로 삼는 등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한다(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 제2권, 창작과 비평사, 1979, 79-80면).

49) 안길정, 앞의 책, 2007, 24면.

에 크게 기여했던 세력이 바로 아전들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판소리 명창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전주 대시습놀이도 전주 관아의 아전들이 일구어 낸 전라도의 중요한 축제 문화였던 것이다. 전주대시습놀이 보존회가 정리해서 발간한『전주대시습사』에 의하면, 전주 대시습놀이는 조선 숙종 때의 마상 궁술대회, 영조 때의 통인 물놀이, 철종 후기의 판소리 백일장 등 민속무예놀이를 종합하여 대시습놀이라고 했다고 한다. 영조 대에 이르러 전주에 군사정·의방정·다가정·진복정 등 4개정을 두어 판소리 백일장을 주관하게 하고 지방 재인청과 가무시습청에서 이를 관장하는 대시습놀이가 연례행사로 계승되었는데, 전주대시습놀이는 여기에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다. 순조 때에는 대시습놀이에서 장원을 한 광대에게 의관·통정·감찰·오위장·참봉·선달 등의 벼슬과 함께 명창 칭호가 주어졌다고 한다.⁵⁰⁾ 전주 대시습놀이의 원래 명칭은 ‘전주부 통인청 대시습’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명칭으로 보아 전주 대시습놀이는 원래 전주부에서 주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864년 이후 흥선 대원군이 전주 대시습놀이를 크게 장려하면서부터 전라감영에서도 전주 대시습놀이를 주관했다고 한다. 전라감영의 대시습놀이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흥선 대원군이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에 눌려서 불우하게 지냈을 때 보신책으로 천하장안의 불량배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파락호(破落戶)로 지내며 안동 김씨의 감시를 피하다가 한동안 자취를 감춘 적이 있다. 이때 대원군은 남사당패를 따라 나섰다가 전주에 들러 백이방(白吏房, 백성환의 증조부)집에 며칠 동안 묵고 있었다. 그때가 마침 단오절이어서 흥선 대원군은 지금의 덕진 공원에 갔다가 거기서 가왕 송흥록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대원군의 초청으로 밤에 백이방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때 송흥록은 대원군의 불우한 처지를 무한히 동정하여, 그날 받았던 행하(行下) 전액을 대원군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 후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 고종이 되면서 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바야흐로 안동 김씨가 몰락하고 대원군의 천하가 되었다. 1864년 흥선 대원군은 전라감사에게 명을 내려 “단오절의 소리경창대회를 감영(監營)에서 관장하고, 거기서 장원한 명창은 상경케 하라”고 했다고 한다.⁵¹⁾

50) (사)전주대시습놀이 보존회, 『전주대시습사』, 도서출판 탐진, 1992, 165면.

51) 박황, 앞의 책, 34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라감영 소속의 백 이방은 대원군과 매우 친분이 깊은 인물이었다. 불우한 시절에 흥선 대원군은 백 이방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단오절 행사에 참여했다가 명창 송홍록과도 인연을 맺게 된다. 이 당시 송홍록 명창은 단오절 행사의 한 분야인 판소리 백익장 대회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판소리 대회를 대원군이 관람했다가 송홍록의 소리에 매료되어 송홍록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고종이 등극하자 권력을 잡은 대원군은 전라감사에게 명하여 전라감영에서 소리경창대회를 열게 하고, 이 대회에서 장원한 명창을 한양으로 상경케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대원군의 장려 덕분에, 전주 대사습놀이는 1864년 이후부터 전라감영의 주관으로 단오절⁵²⁾에 성대하게 개최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고종 조에 이르면, 전주 대사습놀이가 전라감영과 전주부의 아전 즉 통인 배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지기도 했다.⁵³⁾ 통인은 관아의 급사와 같은 말리(末吏)로 아전의 자식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인은 전라감영에도 있었고 전주부에도 있었다. 이들 통인들이 전주 대사습놀이 축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인들의 위세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천민인 판소리 창자들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대사습놀이 참여를 소원했지만, 이들의 참여 여부는 임의대로 쉽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축제를 주도하는 전주 관아 아전들의 추천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무부들을 관리했던 것은 전라도 각 고을의 아전들이었지만, 전주 관아의 아전들은 각 고을의 아전

52) 홍현식, 『대사습의 전통성』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전주대사습놀이가 연행된 시기는 단오절이 아니라 동짓날이었다고 한다. 이 대회에서는 영문과 본부로 서로 나뉘어 자기 소속 광대의 위세를 했고 동지 한 달 전부터 훌륭한 광대를 불러다가 좋은 음식 등으로 대우를 해주며 경연대회를 열었다는 것이다(홍현식, 『대사습의 전통성』, 『전북 도립국악원 연구결과보고서』, 1987). 이런 점으로 보아 전주대사습놀이는 동짓날에도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오제는 여러 종목이 종합적으로 연행되는 고을 단위의 큰 축제였기 때문에, 전주대사습놀이는 단오제 때 대규모로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병호도 단오제 때 전주대사습 경연대회가 펼쳐졌다고 제보하고 있다(최병호 제보, 2012. 6. 22). 범성포 단오제에 관한 기록물인 『법호견문기』에 의하면, 범성포 단오제는 한말부터 매년 5월 5일에 개최되었는데, 이때에는 판소리 · 땅재주 · 시조 · 줄타기 등 우리나라의 모든 기예가 경연되었으며, 이 대회에서 명창명인(名唱名人)들이 결정되었다고 한다(김동수 외, 『범성포 단오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족학연구소, 월인, 2007, 180면 참조).

53) 조선 후기의 전주 대사습놀이는 전라감영뿐만 아니라 전주부에서도 별도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김세종 · 정창엽 · 장재백 · 송만갑 등은 본부(전주부) 소속 광대였고, 주덕기 · 이날치 · 박만순 · 장수철 등은 영문(전라감영) 소속 광대였다고 한다(김대행 외, 『전북의 판소리』, 『전북학연구총서』Ⅱ, 전라북도, 2003, 291면).

들을 총 지휘하면서 전주 대사습놀이를 주도하는 세력이었다. 특히 전라감영에 있었던 영리들은 전라도 일대의 무부들과 아전들을 총 관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판소리 명창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여 전주 대사습놀이에 참여코자 하였으며, 명창들을 발굴하려는 전라감영의 아전과 전주부의 아전들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면모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전라감영의 전주 대사습놀이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영의 통인, 즉 아전과 육방들은 전국의 이름난 소리꾼들을 경쟁적으로 발굴했고, 이들을 일찍부터 통인청에 기숙시킨 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신·보양해 대사습에 임하게 했다. 대회장의 객석은 상·하로 구분해 상석은 전라감사와 각 고을 수령과 관기들, 하석은 유지와 양반들, 맨땅은 일반 백성들이 차지했다. 이 무대에서 가장 출중한 기량을 뽐낸 사람이 장원이 되는데, 장원자는 상경해 운현궁에 기거하면서 대원군의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통정’이나 ‘참봉’ 등의 벼슬이 제수되었다. 이때부터 ‘어전광대’라는 별호도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서로 다투어 일생을 걸고 가일층 소리공부를 하게 되어 수많은 명창이 배출되었고, 판소리의 최고 융성기를 맞이했다.⁵⁴⁾

위의 사례에 의하면, 전라 감영의 아전들이 전국의 유명한 명창들을 경쟁적으로 발굴하여 전주 대사습놀이에 참여케 했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 명창들은 대회가 있기 며칠 전부터 전라감영의 통인청에 합숙하면서 아전들의 보호와 관리를 받았다고 한다. 전라감영에서 개최된 전주 대사습놀이에는 전라 감사를 비롯한 각 고을 수령과 관기들, 그리고 마을 유지·양반·일반 백성까지도 참여하여 관람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장원한 명창은 한양으로 올라가 운현궁에 머물면서 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어전광대로 활약할 수 있었다. 천한 천민의 무부가 왕실에 들어가 대원군의 총애를 받고 통정대부나 참봉 같은 벼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무부들의 판소리 경쟁을 더욱 자극시켜 전라도 판소리 발전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주 대사습놀이는 전주부와 전라감영의 경쟁적 놀음이었기 때문에, 전주

54) 박황, 앞의 책, 34-35면.

부 아전과 전라감영 아전 간의 판소리 명창 유치 경쟁은 큰 폐단을 불러오기도 했다. 전주부와 전라감영의 대시습놀이는 관중의 많고 적음에 우열을 가렸다고도 한다. 그런데 대시습놀이가 계속되면서 전주 동헌과 감영 간에 경쟁이 과열되어 통인까지, 한량끼리, 또 관중들끼리 설전이 벌어지거나, 심지어 투석전까지 벌어지는 등 갖은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⁵⁵⁾ 이와 같은 폐단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대시습놀이는 왕실·양반·민중층 등 다양한 층위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온 전주의 주요 문화 축제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전주가 귀명창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진 것도, 대중들이 전주 대시습놀이 에 참가한 명창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판소리에 대한 안목을 키워왔기 때문 일 것이다. 이처럼 귀명창이 많은 전주였기 때문에, 판소리 창자들이 전주에서 선불리 공연했다가 관중으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조선 후기의 명창 정창업도 전주 대시습장에서 <춘향가>를 부르다가 실수하여 관중으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고 소리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⁵⁶⁾ 이후 그는 신재효 문하에까지 들어가 소리에 대한 원리와 이론까지 철저히 학습하였고, 25세 때 두 번째로 전주 대시습에 도전하여 유명한 명창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⁵⁷⁾ 이처럼 전주 대시습놀이는 어려운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명창들이 반드시 거치고 싶은 꿈의 무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판소리 창자들이 전주 대시습놀이에 경쟁적으로 도전했고, 이 무대에서 장원한 창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받아 유명한 판소리 명창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순창 출신의 박유전은 피나는 노력으로 판소리를 터득하여 25세 때 전주 대시습놀이 대회에 참여하였고 이 대회에서 장원한 덕분에 전라 감사의 비호뿐만 아니라 홍선 대원군의 부름까지 받아 천하 제일강산이라는 아호와 선달벼슬을 하사받을 수 있었다.⁵⁸⁾ 전주 대시습놀이는 임오군란(1882년)·동학혁명(1894년)·명성황후시해사건(1895년) 등 정치적 격변기를 제외하고는 1905년 전까지 매년 성대하게 개최되었는데,⁵⁹⁾ 이 기간 동안 명창들 대다수가 이 무대를 거쳐 갔던

55) 앞의 책, 36면.

56) 정노식, 『조선창극사』, 동문선, 1994, 114면.

57) 김성식·이영배·최기우, 앞의 책, 2008, 31면.

58) 앞의 책, 102면.

59) 전주 대시습놀이는 일제시대 때 폐지되었으나, 1975년 9월 21일에 다시 부활하여 현재에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주 대사습놀이 축제의 중심에는 전주 관아의 아전들이 있었고, 판소리 명창들은 이 통로를 활용하여 명성을 얻은 다음 중앙이나 지방 관아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고 하겠다.

5.2. 전주 아전과 전주 재인칭 무부간의 교류

아전들은 고을 수령과 지역민을 매개하는 주요 계층이었다. 고을 수령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임기제였고, 아전들은 지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지역 축제 즉 성황제나 단오제와 같은 축제를 주도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지역민을 장악하는 실세는 아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무부·기생·노비 등도 장악하고 있었고 또 고을 수령과는 달리 지역에 밝은 토박이였기 때문에, 전주대사습놀이와 같은 큰 축제를 개최하여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령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이방이나 신재효 같은 아전들은 정치권력의 실세였던 대원군과도 친분이 매우 깊은 인물이었다. 그 당시 대원군은 전주대사습놀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대회에서 장원한 명창들을 궁궐까지 불러들여 어전 명창으로 활약하게끔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무부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전들의 위세도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전들은 양반층에 속하지 못하는 중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을 수령에 대한 적대감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고을 수령을 능가하는 대원군과 같은 왕실의 비호가 필요했을 거라 판단된다. 전주 아전들이 전주대사습놀이를 위해 판소리 창자 발굴에 경쟁적으로 몰두했던 것도, 대원군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들의 정치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천한 신분의 무부들에게도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주는 주요 통로로 작용하였다. 전라도 무부들은 가장 억압받은 천민 계층이었다. 이들 세습무 집단은 단골판을 매매하여 마을에 거주하면서 무업을 했던 마을 전속 무당들이었던 것이다. 전라도에서는 무속 신앙이 매우 강력했지만 그와

이르고 있다(앞의 책, 34-37면).

더불어 무당에 대한 차별도 매우 심했다. 직업 전환이 불가능했던 신분제 사회에서, 왕실과 접하여 부와 벼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전라도 무부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기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 창자가 되기 위해 피나는 독공의 시간을 거쳤던 것도 무부들의 이 같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의 전주대사습놀이는 아전과 무부의 욕망이 서로 맞물려 활성화된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을 수령을 견제하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아전들의 욕망과 신분 상승을 꿈꿨던 무부들의 욕망이 교집합을 이루어 전주대사습놀이가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하겠다. 아전은 축제를 주도하는 지역 사회의 실세였고, 무부들은 연행 주체자였기 때문에, 아전과 무부는 서로 긴밀하게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 5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라감영 소속의 백 이방은 권삼득·송홍록과 같은 판소리 명창들과 교류가 깊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무부들은 지방 및 중앙 관청 또는 왕실의 행사까지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나갔다고 하겠다.

백 이방이 판소리 명창들과 긴밀히 교류했던 것을 보면, 전주 아전과 전주 재인청 무부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영조 8년의 기록에는 전주부 주관으로 개최된 단오절 행사 때 판소리 백일장 대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대회를 ‘지방 재인청’과 ‘가무사습청’에서 관리했다고 한다.⁶⁰⁾ 축제를 총 지휘하는 것은 전주부 아전들이었지만, 전주 관아에 예능인을 공급하는 주요 기관은 전주 재인청이었기 때문에, 전주 재인청 소속 무부들은 전주부 아전의 지휘 하에 전주 대사습놀이를 주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인청 대사습, 바꾸어 말하면 출중한 명창을 선출하는 전국 판소리 경창대회 때가 되면 각 고을에서 이름난 창악인들이 몰려들었고 관아에서는 이들을 통인청에 기숙시켜 며칠 전부터 보신·보양시킨 다음 대사습에 임하게 하였다……이방은 전라도 각 지방 수령에게 초청 공문을 보내고, 전주성 내의 소위 돈냥이나 가진 유지와 양민에게 통문을 돌리며, 대방을 불러서 놀이터에 가설 무대를 설비케 하는 등 대사습 준비의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 그 날 참석하는

60)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앞의 책, 165면.

각 고을 수령은 물론이고 성내 유지와 양민도 몇 백 냥 또는 몇 십 냥의 헌납금을 내놓게 되므로 이 돈으로 대사습의 일체 비용에 충당하였다.⁶¹⁾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 관아의 아전과 전주 재인청의 무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 대사습놀이를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전주 관아의 이방은 지방 수령·마을 유지·양반 등에게 통문을 발송하거나 행사비를 마련하는 등 주로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였고, 전주 재인청 소속의 무부들은 무대 설비와 같은 행사 도구들을 준비했다고 한다. 전주 재인청의 수장은 전주 관아 이방의 지시를 받으며, 전주 재인청 무부들과 함께 행사 준비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전들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중간 역할은 전부 그 사람들이 했지, 기생들이나 광대들이 전부 아전 등살로 먹고 살았어.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뭐 주간디? 아전들하고 무부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여. 그 사람들이 전부 축제를 주관허잖여. 아전들은 판소리를 아주 좋아했어. 기생들이 소리허든 아전들이 가서 북도 치고 그러어. 그 사람들이 전부 귀명창이여. 북 잘 치는 아전들이 많았어.....대사습놀이도 단오제 때 했는디, 전부 아전들이 주관했어. 관찰사는 관여 허를 안허. 관찰사는 함부로 나다니딜 안허지. 아전들이 단오날을 받아서 재인청오다 통보를 허. 뭐뭐 준비허라고. 아전들도 우두머리가 있어. 아전 우두머리 지시에 따라 재인청이 움직이지. 날을 받았으니까 모다 출도허라고 재인청오다 통보를 허든, 재인청으서 무부들헌티 연락을 허. 재인청으서 소리 잘 허는 사람들을 뽑아 대사습놀이에 투입시키지.⁶²⁾

이와 같이 전주 관아의 아전과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고 할 수 있다. 단오제 때가 되면 아전들이 재인청 무부들과 협력하여 단오제를 준비했는데, 특히 재인청에서는 판소리 대사습 경연 대회에 참여할 판소리 명창 발굴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 관아는 행정 중심지이자 주요 문화소비지였기 때문에, 축제를 총괄하는 전주 아전의 위세는 대단했을 것이고, 더불어 전라도 각 고을 재인청을 총

61) 박황, 앞의 책, 113-114면.

62) 최병호 제보(일사: 2012. 6. 22, 장소: 완주군 이서면 자택).

감독했던 전주 재인청 위세도 막강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전주 재인청 무부들은 전주 아전과의 협의 하에 연회 주체들은 선발한 뒤, 이들을 지방 관아나 중앙 관아에 투입시키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송만갑·전도성·장재백 등과 같은 판소리 창자가 어전 명창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전주 대사습놀이를 주도하는 전주 아전과 전주 재인청의 역할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주 관아 아전과 전주 재인청 대방의 추천이 없었다면, 이들의 대사습놀이 참여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어전 명창으로 성장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맺는말

조선시대에는 전라도가 전북·전남·제주도 일대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관할하였는데, 전주에는 전라도 관찰사가 근무하는 전라감영이 있었고, 또 전주 일대를 관할하는 전주부도 근처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관아가 있는 전주 성 부근에는 전라도 각 고을 재인청들을 총 감독하는 도청 즉 전주 재인청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주에 대규모의 한지시장·출판시장·부채시장 등이 형성되는 바람에 전주 재인청 무부들은 최대의 문화소비시장이라 할 수 있는 전주 관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회 활동을 펼쳐보였다.

재인청은 지방 관아나 군영의 행사를 위해 무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기구였지만, 이러한 재인청은 무부들이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로 작용하기도 했다. 비록 공역이기는 했지만, 중앙의 연말 나례회·중국 사신맞이 때의 산대회·과거 급제자 문회연 등은 무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무대로 작용했던 것이다. 즉 중앙 무대는 천민인 무부가 왕과 중앙 관료들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재물과 벼슬을 하사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부들은 계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재인청을 설립하여 지방 관아와 긴밀히 교류하며 자신의 경제 활동 영역을 폭넓게 확장시켜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 재인청은 도청으로서 위상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지방 연회자들을 선발하여 중앙 무대로 진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중앙 관아의 연회는 충청도·경기도·전라도 재인들이 주도하였는데,

특히 중앙 연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도대방과 도집강에게는 팔도의 재인들을 중앙 무대에 투입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부여되었다고 하겠다.

판소리 발달에 크게 기여했던 계층은 전라도 관아의 아전들이라 할 수 있다. 아전들은 지방 관아의 하급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을 단위의 성황제·단오제, 그리고 지방 관아 내부의 나례회·각종 연회 등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자들이었다. 연회 주체는 대부분 기생과 무부들이었기 때문에, 아전들은 기생과 무부들을 관리하면서 고을 축제나 지방 관아의 각종 연회들은 주도해왔던 것이다.

전주 아전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전주 대사습놀이든 무부들의 판소리 경쟁을 더욱 자극시켜 판소리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주대사습놀이는 아전과 무부의 욕망이 서로 맞물려 활성화된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을 수령을 견제하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아전들의 욕망과 신분 상승을 꿈꿨던 무부들의 욕망이 교집합을 이루어 전주대사습놀이가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하겠다. 아전은 축제를 주도하는 지역 사회의 실세였고, 무부들은 연행 주체자였기 때문에, 아전과 무부는 서로 긴밀하게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무부들은 지방 및 중앙 관청 또는 왕실의 행사까지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나갔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무부들의 활동 영역은 양반이나 중인층까지 포섭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들은 재인청을 토대로 연마한 자신의 예능을 수단으로 양반·부잣집 중인들의 모임이나 생일잔치, 향교의 제례 등에까지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이처럼 재인청 소속의 무부들은 지방 관아와 연결된 재인청을 조직하여 관청의 영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양반·중인 등의 향유층까지 포섭하여 자신들의 예능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갔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전주대사습사』, 도서출판 탐진, 1992.

『증보문헌비고』제16권, 여지고(輿地考) 4.

『한국민속문화백과사전』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남원 디지털대사전 사이트; http://namwon_grandculture.net.

전라북도청 사이트; <http://www.jeonbuk.go.kr>.

2. 논저

강준만·성재민 외, 『재미있는 전주이야기』, 인물과 사상사, 2008.

김기형, 『宋門一家의 판소리 史的 意義와 동편제의 脈』,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1999.

김대행 외, 『전북의 판소리』, 『전북학연구총서』Ⅱ, 전라북도, 2003.

김동수 외, 『법성포 단오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족학연구소, 월인, 2007.

김동욱, 『한국 가요의 연구』, 을유출판사, 196.

김성식·이영배·최기우, 『전북의 재발견, 소리』, 전라북도, 2008.

노동은, 『한국 근대 음악사』1, 한길사, 1995.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제2권, 창작과 비평사, 1979.

박황, 『판소리 2백년사』, 사사연, 1987.

배인교, 『조선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성기련, 『18세기 판소리 음악문화연구』, 『한국음악연구』34집, 한국음악학회, 2003.

손태도, 『광대의 가창 문화』, 집문당, 2003.

손태도, 『광대집단의 가창 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안길정, 『조선시대 생활사』(상), 사계절, 1판 3쇄, 2005.

안길정, 『조선시대 생활사』(하), 사계절, 1판 3쇄, 2007.

안화, 『임오년의 조선 군악』, 『자산안화논저집』권5, 여강출판사, 1994.

- 이경엽 외, 『여수영당·풍어굿·악공청』, 민속원, 2007.
- 이경엽, 「무속의 전승주체」, 『한국무속학』36집, 한국무속학회, 2002.
- 이보형, 「창우집단의 광대소리 연구-육자백이 토리권의 창우집단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음악 논구』, 고대 민속문화연구소, 1990.
- 이상택, 「조선후기 중인층의 판소리 문학」, 『한국문화』제13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 이숙희, 『조선후기 군영악대』, 태학사, 2007.
- 이영금, 「전통문화의 원천으로서 무 문화의 갈래와 위상-호남지역 세습무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제44집, 비교민속학회, 2011.
- 이영금, 『해원과 상생의 퍼포먼스-호남지역 무 문화』, 민속원, 2011.
- 이영금, 『전북 씻김굿』, 민속원, 2007.
- 정노식, 『조선 창극사』, 동문선, 1994.
- 조성, 「무속과 광대」, 『한국문화인류학』 제33회, 한국문화인류학회, 1965.
- 최동현, 『판소리란 무엇인가?』, 에디터, 1996.
- 홍현식, 「대사슴의 전통성」, 전북 도립국악원 연구결과보고서, 1987.
- 赤松智城·秋葉隆 공저(1938),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하), 동문선, 1991.

【국문초록】

조선시대에는 전라도가 전북·전남·제주도 일대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관할하였는데, 전주에는 전라도 관찰사가 근무하는 전라감영이 있었고, 또 전주 일대를 관할하는 전주부도 근처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주 관아 근처에는 전라도 각 고을 재인청들을 총 감독하는 도청 즉 전주 재인청이 있었다. 전주 재인청은 도청으로서 위상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지방 연희자들을 선발하여 중앙 무대로 진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주 아전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전주 대사습놀이는 무부들의 판소리 경쟁을 더욱 자극시켜 판소리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주대사습놀이는 아전과 무부의 욕망이 서로 맞물려 활성화된 축제였다. 아전은 축제를 주도하는 지역 사회의 실세였고, 무부들은 연행 주체자였기 때문에, 아전과 무부는 서로 긴밀하게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무부들의 활동 영역은 양반이나 중인층까지 포섭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재인청 소속의 무부들은 지방 관아와 연결된 재인청을 조직하여 관청의 영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양반·중인 등의 향유층까지 포섭하여 자신들의 예능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갔다고 하겠다.

주제어: 전주 재인청, 관찰사, 대사습놀이, 무부, 조선시대 후기, 판소리, 전주 아전

【Abstracts】

The Pansori activity of the male-shamans

– Focused on the Jonju Jeinchong and Jonju Ajon

Lee, Young-gum

In Chosun Dynasty, Cholla Province had control over the vast area of North Cholla, South Cholla and Jeju Provinces. In Jonju, there was Cholla Gamyoung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where Cholla Gwanchalsa (Governor) worked and also there was Jonju Bu (City Hall) controlling the whole area of Jonju. Near this Jonju Gwan-A (City Government Building) there was Jonju Jeinchong (Local Entertainer Management Office) which was in charge of supervising entertainers at all counties in Cholla Province. Since Jonju Jeinchong was of high status as a Provincial Office, it played a crucial role of selecting local entertainers for the debut on the capital stages.

Jonju Daesaseup-Nori (Korean-Opera Festival) held by an official in Jonju Gwan-A was a factor stimulating the male-shamans to compete more enthusiastically at Pansori (Korean One-manned Opera) Contest, which contributed to the acceleration of Pansori development. This contest was a festival vitalized with the ambitions of the official and the male-shamans interlinked with each other. Since the official was a big-shot in the community taking the lead of the festival and the male-shamans were the hosts of the entertaining event, they couldn't help closel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the

boundary of male-shamans was expanded to the degree of winning Yangban (aristocrats) and the middle class over to their sides. Like this, the male-shamans belonging to Jeinchong organized it to be connected to local government office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turf but also for the expansion of their entertainment boundary by embracing the classes enjoying their arts such as commoners, aristocrats and people of the middle class.

Key words : Jonju Jeinchong, Gwanchalsa, Daesaseup-Nori, the male-shamans, the late of Chosun Dynasty, Pansori, Jonju Ajon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